

외국정상들, 유엔총회 계기 해리스·트럼프 만나려 안간힘

이번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들이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만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수십 개 국가가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이들을 통해 면담을 요청했으며, 일부 국가는 면담을 성사하기 위해 자국 일정을 조정하겠다고까지 제안했다.

외국 정상들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이유는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대미(對美) 외교 정책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가능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 다 만나기로 확정된 외국 정상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일해 보인다.

해리스, 워싱턴서 우크라이나·UAE 대통령과 회담...총회 불참 트럼프, 카타르·인도·우크라이나 정상과...사전발표 없이 만날 수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임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이며 양 대선 후보에게 러시아의 침공을 방아쇠 지원을 지속해 달라고 촉구해왔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8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는데 이번이 7번째 만남이다.

이에 앞서 워싱턴DC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이다.

UAE는 미국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고 중동을 안정화하는 데 필수적인 협력국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로서는 유엔총회에 참석할 계획이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리아라고 자택에서 카타르의 셰이크 타미姆 빈 하미드 알사니 국왕과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를 만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왕은 중동과 전 세계에 평화를 강력히 원하는 사람이다. 내가 백악관에 있을 때 우리는 훌륭한 관계를 쌓았으며 이번에는 더욱더 그럴 것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가깝게 지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이번 주 만날 계획이다.

트럼프 대선 캠프와 가까운 소식통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전에 발표하지 않고 정상들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식통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양쪽 모두 면담 일정이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두 후보가 11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운동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면담을 요청하는 여러 외국 정상 중 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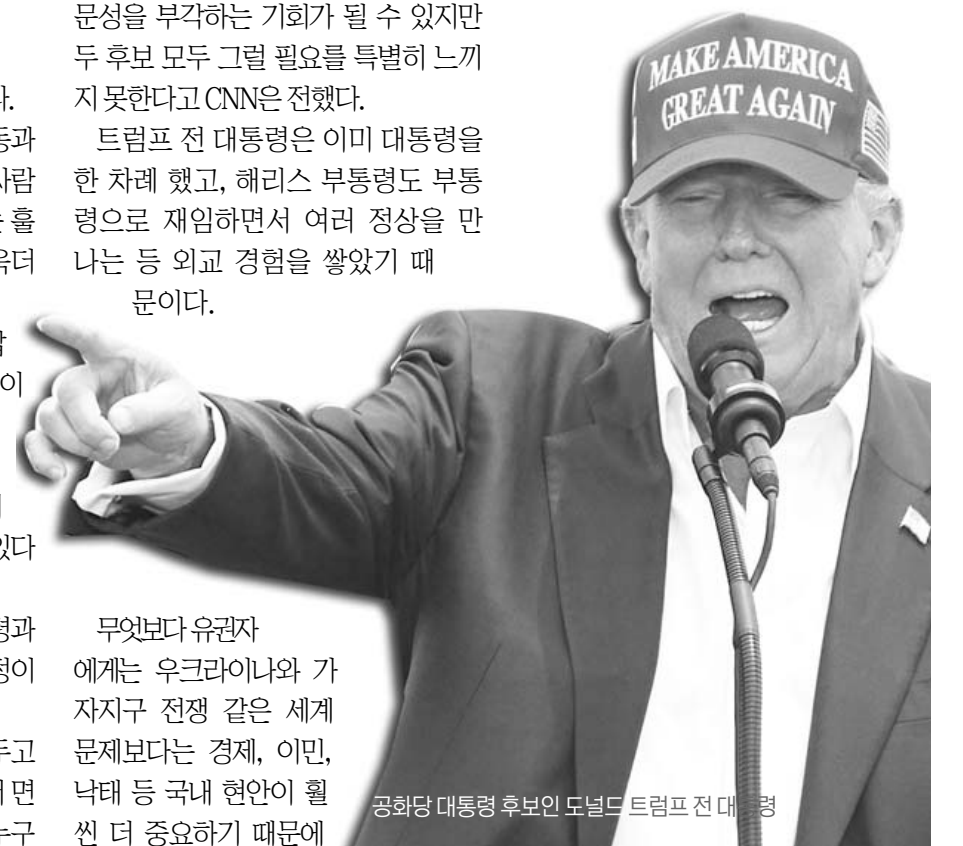
를 만날지는 우선순위와 시간의 문제가 된다.

외국 정상과 회담이 후보의 외교 전문성을 부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두 후보 모두 그럴 필요를 특별히 느끼지 못한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을 한 차례 했고, 해리스 부통령도 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여러 정상들을 만나는 등 외교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유권자에게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 같은 세계 문제보다는 경제, 이민, 낙태 등 국내 현안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엔총회 참석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中, 공 모양 신형 정찰장비 첫 공개

네팔과 합동 군사훈련서 선보... "소음 없이 구르며 정찰"

중국인 자체 추진력을 갖춘 공 모양의 정찰 장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진>

23일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과 네팔은 전날 중국 남서부 충칭시 훈련기지서 개막식을 개최하고 '사가르마타(에베레스트)-우정 2024'로 명명된 합동훈련에 돌입했다.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훈련은 합동 대테러 작전을 주제로, 소형(경)화기 사격, 대테러 전술, 드론 작전, 비상구조 조치 등에 초점을 맞춰 실시된다.

중국 측은 개막식 직후, 소형화기와 로봇 개, 레이더 등 테러 방지용 정찰 장비 등 20종 이상의 무기와 군사 장비를 전시했다.

이 가운데 자체 추진력을 갖춘 공 모양 정찰 장비가 처음으로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현지 취재에 나선 기자가 직경 15cm 안팎으로 보이는 검은색 공 모양의 정찰 장비



공 모양의 신형 정찰장비

를 한손에 잡은 모습이 공개됐다. 중국 매체들은 이 장비를 중국어로는 '정찰구(球)'로, 영어로는 '정찰 드론'으로 각각 표현했다.

중국 군사전문가는 글로벌타임스에 "공 모양의 미니 드론은 소음 없이 지면을 굴러 도시지역을 이동할 수 있어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다"며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위험한 환경에서 병력이 노출되는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 당국이나 관영 매체들은 이 드론의 구체적인 제원이나 성능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는 물론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과도 합동 군사훈련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국은 합동 군사훈련을 계기로 신형 무기도 공개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월 캄보디아와의 합동 군사훈련에서 원격 제어가 가능한 기관총이 장착된 '로봇 개'를 처음 선보인 바 있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와 이달 초부터 동해와 오희츠크해에서 진행 중인 양국 해·공군 합동 훈련의 2단계 과정에 진입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양국 군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동해와 오희츠크해 공해상에서 1단계 훈련을 진행한 데 이어 21일부터 동해에서 양국 군함을 동원해 실탄 사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양국 해안경비대도 지난 16-20일 블라디보스토크항 인근 표트르 대제만 해역에서 합동훈련을 시행한 데 이어 21일부터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합동 순찰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이란 탄광서 메탄가스 폭발 51명 사망

이란 동부에 있는 한 석탄광산에서 지난 21일(현지시간) 메탄가스 누출로 폭발이 일어나 최소 5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사진>

사고는 현지시간 오후 9시에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540km가량 거리에 있는 남호라산주(州) 타바스의 석탄광산에서 발생했다.

폭발 당시 약 70여명이 지하 250m 지점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메탄가스 농도가 높아 구조대 접근이 어려웠다.

이란에선 석탄은 연간 350만t가량을 소비하며 매년 자국 광산에서 180만t를 채굴하고 나머지는 수입한다.

이란 광업계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에도 한 석탄 광산에서 발생한 폭발로 최소 42명이 숨졌고 2013년에는



두 건, 2009년에는 여러 건의 사고로 총 3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다.

이는 안전 기준이 느슨하고 광업 지역의 응급 서비스가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세계체스연맹,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선수 출전금지 유지

세계체스연맹(FIDE)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도운 벨라루스 출신 선수들에 대한 국제대회 출전 금지 결정을 유지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FIDE는 이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제45회 체스 올림피아드와 함께 열린 총회에서 찬성 41표, 반대 21표, 기권·불참 27표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에 대한 출전금지안을 승인했다.

다. 키르기스스탄은 이번 총회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에 대한 전면적인 복권 허용안을 상정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국 국무부, 마그누스 카를센을 포함한 역대 우승자들과 우크라이나 올림픽 팀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3 보관 장소가 늘어듭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